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312호 [주제 제26186호] 주제 107 (2018)년 11월 8일 (목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자

### 기본방조제 건설에서 최고기록 들판

북해도 간석지건설장에서 현

일 혼신이 쟁치되고 있다.

종합원 자료에 의하면 황해남도 간석지건설총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백화물류의

공정성으로 짜은 기간에 남태

한 토탕을 처리하여 날마다 우에

1,200여m의 기본방조제를

건설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

다. 그리하여 기본방조제건설에

서 최고기록을 둘파하였다.

이 혁학한 성과는 봉해도 간석

지건설을 하루빨리 완공하여

수령의 유훈완칠전, 당정책을

위한 윤간화 비단경복지의 영

예를 빛내기려는 이들의 불라는

충정이 넓은 자랑찬 결실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부지 땅면적에 제한되어 있

는 우리 나라에서 간석지를

개간하여 부지 땅면적을 늘이

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핵심

한 문제입니다.》

종합기업소의 일군들은 간석

지건설을 다그쳐 끌어기 위해

일별, 주별, 월별 공정계획을 높

이 세우고 대단하고 통이 큰 작

전을 펼쳐왔다.

이들은 공사기일을 앞당길수

있는 가능성과 예비를 통용하여

하는 한편 새로운 공법과 창의

고안들을 적극 받아들이 기본

방조제 건설시작부터 경쟁열풍

이 새롭게 퍼트려 아치하고 하였다.

새로운 창과 토위장을 주자적방향

으로 정하고 그에 맞게 로액조

#### 통매도 간석지 건설장에서

직을 짜고들면서 견두지휘를

기동적으로 하여 공사속도를 높

이기 위해 험난한 전투를 벌렸다. 임

무의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한사람같이 험난한 전투를 험

나갔다. 각 분사업소에서는 건설자

들의 정신력을 복달시켜 매일

새 기록을 창조하기 위한 총공

격전을 험하게 벌리었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기운이

다 난판이 일용 막아나서는 불

거의 가지 부족풀들을 재생비용

하려는 속에 간석지건설자들은

지난 10일에는 80m, 2일에는 90m, 3일에는 100m의 기본

방조제를 건설함으로써 하루기

록을 펼쳐들어 들판하였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

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

의 만년대기와 후손대민의 행복

을 위한 간석지건설에서 영웅적

김정일-김정일로통계 기상

을 높이 펼쳐나가고 있는 통에도

간석지건설자들의 혼신적인 두

정에 의해 날마다 바다를 훼지르며

기본방조제가 떨어나가고 있다.

분사업소에서는 자체의 힘으

로 수리기지를 뿐만 아니라

돌을 기본방조제건설장에 보내

주었다.

건설판의 정신이 새차지에 나

래지는 속에 간석지건설자들은

지난 10일에는 80m, 2일에는 90m, 3일에는 100m의 기본

방조제를 건설함으로써 하루기

록을 펼쳐들어 들판하였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

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

의 만년대기와 후손대민의 행복

을 위한 간석지건설에서 영웅적

김정일-김정일로통계 기상

을 높이 펼쳐나가고 있는 통에도

간석지건설자들의 혼신적인 두

정에 의해 날마다 바다를 훼지르며

기본방조제가 떨어나가고 있다.

글 본사기자 전명일

사진 본사기자 한광명

####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도들에 중앙양묘장과 같은

현대적인 양묘장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할 때 대한 당의 뜻

을 높이 달고 황해북도와

함경남도의 일군들과 근

로자들이 도양보장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

#### 황해북도에서

도양보장건설에 펼쳐나온

황해북도의 일군들과 근

로자들이 수십정보의 면적

에 관리청, 살원점, 농원점, 농

자협회 등 건축공사를 완공

하고 생산구역 건물들에 대

한 내외부의 부족을

도양보장건설에 애쓰하고 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

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

의 만년대기와 후손대민의 행복

을 위한 간석지건설에서 영웅적

김정일-김정일로통계 기상

을 높이 펼쳐나가고 있는 통에도

간석지건설자들의 혼신적인 두

정에 의해 날마다 바다를 훼지르며

기본방조제가 떨어나가고 있다.

글 본사기자 전명일

사진 본사기자 한광명



#### 도양묘장건설 힘있게 추진!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할 때 대한 당의 뜻

을 높이 달고 황해북도와

함경남도의 일군들과 근

로자들이 도양보장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

『도들에 중앙양묘장과 같은

현대적인 양묘장을 건설해야 합니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할 때 대한 당의 뜻

을 높이 달고 황해북도와

함경남도의 일군들과 근

로자들이 도양보장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

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

의 만년대기와 후손대민의 행복

을 위한 간석지건설에서 영웅적

김정일-김정일로통계 기상

을 높이 펼쳐나가고 있는 통에도

간석지건설자들의 혼신적인 두

정에 의해 날마다 바다를 훼지르며

기본방조제가 떨어나가고 있다.

글 본사기자 전명일

사진 본사기자 한광명

#### 황해남도에서

도양보장건설에 펼쳐나온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근

로자들이 수십정보의 면적

에 관리청, 살원점, 농원점, 농

자협회 등 건축공사를 완공

하고 생산구역 건물들에 대

한 내외부의 부족을

도양보장건설에 애쓰하고 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

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

의 만년대기와 후손대민의 행복

을 위한 간석지건설에서 영웅적

김정일-김정일로통계 기상

을 높이 펼쳐나가고 있는 통에도

간석지건설자들의 혼신적인 두

정에 의해 날마다 바다를 훼지르며

기본방조제가 떨어나가고 있다.

글 본사기자 전명일

사진 본사기자 한광명

#### 가을갈이 성과 확대



#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 견인불발의 투쟁으로 열어제낀 돌파구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일군들파로동계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것도 많고 없는것도 적지 않지만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면 끌지 못할 난관이 없으며 절명 못할 재난이 없느니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넉넉한 민생제계획을 일당히 완수한 기세로 힘차게 대처하고 있다.

부단지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끊고헤며 이들에 응해 제작한 기계설비를 가로등에는 전기식 굴착기로 있다.

락원의 로동계급이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부단지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끊고헤며 이들에 응해 제작한 기계설비를 가로등에는 전기식 굴착기로 있다.

그렇게 되면 광화국창전 일흔

을 맞으며 넉넉한 민생제계획을 일당히 광명에 대한 험난한

기회를 안내해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계설비를 제작하는 데에

기여하는 힘을 더해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일 부품이라면 환마을

한뜻으로 떠쳐일어나 산도 끌

기고 바다로 뛰어들수 있는

기력을

갖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일 부품이라면 환마을

한뜻으로 떠쳐일어나 산도 끌

기고 바다로 뛰어들수 있는

기력을

갖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일 부품이라면 환마을

한뜻으로 떠쳐일어나 산도 끌

기고 바다로 뛰어들수 있는

기력을

갖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일 부품이라면 환마을

한뜻으로 떠쳐일어나 산도 끌

기고 바다로 뛰어들수 있는

기력을

갖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일 부품이라면 환마을

한뜻으로 떠쳐일어나 산도 끌

기고 바다로 뛰어들수 있는

기력을

갖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일 부품이라면 환마을

한뜻으로 떠쳐일어나 산도 끌

기고 바다로 뛰어들수 있는

기력을

갖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일 부품이라면 환마을

한뜻으로 떠쳐일어나 산도 끌

기고 바다로 뛰어들수 있는

기력을

갖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일 부품이라면 환마을

한뜻으로 떠쳐일어나 산도 끌

기고 바다로 뛰어들수 있는

기력을

갖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일 부품이라면 환마을

한뜻으로 떠쳐일어나 산도 끌

기고 바다로 뛰어들수 있는

기력을

갖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일 부품이라면 환마을

한뜻으로 떠쳐일어나 산도 끌

기고 바다로 뛰어들수 있는

기력을

갖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일 부품이라면 환마을

한뜻으로 떠쳐일어나 산도 끌

기고 바다로 뛰어들수 있는

기력을

갖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일 부품이라면 환마을

한뜻으로 떠쳐일어나 산도 끌

기고 바다로 뛰어들수 있는

기력을

갖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일 부품이라면 환마을

한뜻으로 떠쳐일어나 산도 끌

기고 바다로 뛰어들수 있는

기력을

갖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일 부품이라면 환마을

한뜻으로 떠쳐일어나 산도 끌

기고 바다로 뛰어들수 있는

기력을

갖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일 부품이라면 환마을

한뜻으로 떠쳐일어나 산도 끌

기고 바다로 뛰어들수 있는

기력을

갖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일 부품이라면 환마을

한뜻으로 떠쳐일어나 산도 끌

기고 바다로 뛰어들수 있는

기력을

갖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일 부품이라면 환마을

한뜻으로 떠쳐일어나 산도 끌

기고 바다로 뛰어들수 있는

기력을

갖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일 부품이라면 환마을

한뜻으로 떠쳐일어나 산도 끌

기고 바다로 뛰어들수 있는

기력을

갖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일 부품이라면 환마을

한뜻으로 떠쳐일어나 산도 끌

기고 바다로 뛰어들수 있는

기력을

갖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일 부품이라면 환마을

한뜻으로 떠쳐일어나 산도 끌

기고 바다로 뛰어들수 있는

기력을

갖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일 부품이라면 환마을

한뜻으로 떠쳐일어나 산도 끌

기고 바다로 뛰어들수 있는

기력을

갖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일 부품이라면 환마을

한뜻으로 떠쳐일어나 산도 끌

기고 바다로 뛰어들수 있는

기력을

갖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일 부품이라면 환마을

한뜻으로 떠쳐일어나 산도 끌

기고 바다로 뛰어들수 있는

기력을

갖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일 부품이라면 환마을

한뜻으로 떠쳐일어나 산도 끌

기고 바다로 뛰어들수 있는

기력을

갖았습니다.»

#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조국의 미래를 굳건히 담보하자

## 자기 실정에 맞는 방법론을 찾아줘고

새 교수방법을 창조하는 사업도 그에 맞는 방법론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현대교육 과학과 교육기술을 도입하여 수십권의 우수한 새 교수방법을 선보인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의 성과를 분석해 보면 주목되는 점들이 있다.

경애하는 최고 명도 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시기 교육부문에서 해결

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의 하나는 교육방법을 시대적

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하

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입

니다.』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

원천회의 이후 대학에서 새 교수

방법 창조사업을 본격적으로 밀

고나갈 작전을 세울 때였다. 앞

선 단위들의 경험과 대학의 실

성을 구체적으로 비교해본 일군

들은 이 단위들처럼 하자면 교

육과학적 빙도도 그렇고 교육기술

개발력을 빙도도 확실히 부족하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학원일군들은 교무행정일

군들과 미주 많아 방도를 모색하

던 물에 자체의 개발력을 키

###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일군들의 사업에서

우고 그에 의거하여 새 교수방법을 밀고나가기로 결심하였다. 전교직원 전자에서도 다른 단위에 의존해서는 결코 더 높은 단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살피고 전교수방법을 개발하여 대학원을 설립하여 대학적인 경쟁력을 쌓는 다음에는 즉시에 강좌별로 새 교수방법창조부를 위한 경쟁력을 증가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기에는 교원들뿐 아니라 박사원생들과 학생과학연구소조에 맞춰 학생들도 참가하였다.

이어서 대학적인 개발팀단에 맞춰 교원들이 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니 같은 기간에 대학적으로 수십명의 가치있는 교수방법들이 창조될 수 있었다.

대학의 실정에 맞게 먼저 개발역량을 놓고 이를 토대로 하여 경험과 기술을 일관화한 것은 결국 새 교수방법창조부로 구도되었다.

교수방법창조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새 교수방법에 대한 파악적인 심의를 강화하고 경영교환을 적극 주동화해나간 것이다.

일군들은 강좌별, 학과별로 업적 한 심의를 거친 새 교수방법 제작팀이 대학적인 심의를 통하여 활동화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평가와 평가서를 전개하면서 설계를 수정하게 하는 교수방법, 인체 모형생성기 등을 리용하여 웃을개능력을 높여주는 교수방법이다. 경

공부분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대학의 특성에 맞게 교수기술이 암암리에 교수과정과 교육

에서 학생과 설계, 제작과 운

영을 밀접히 결부시킨 것으로 하여 이 교수방법들은 대학적인 본보기로 되었다.

대학원군들은 이렇게 일정한 경험을 쌓은 다음에는 즉시에 강좌별로 새 교수방법창조부를 위한 세션하고 높은 수준의 교수방법들이 창조되게 되었다는 것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군들은 당초의 지도팀에 강좌별로 종합적인 평가를 하여 충족성을 인정하는 교수방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대학원군들이 잘한 것은 모든 강좌들이 차례로 어려 단위대학, 학부들을 돌아온 많은 새 교수방법들이 높아져 되었다. 이 교수방법들이 대학원에서도 일상화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교육부문 일군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작팀은 새 교수방법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마다 그 원리를 이해하고 경영교환을 통해 학습할 수 있게 첨단재료기술을 활용해 제작팀을 키워나갔다.

대학원군들이 다음으로 중시한 문제는 새로운 교수방법들을 교수실에서 적용해보면서 더욱 완성화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데도 좋았으며 따라서 서로서로, 따라마루에 기운 풍물을 풀어놓고 모든 교원들을 더욱 분발시켜는데도 큰 호평을 나타내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개발팀으로 일정한 평가를 받았을 때마다 그 원리를 이해하고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을 강의에 적용해보니 학생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대학원군들은 경영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적용해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lt;p



